

[독서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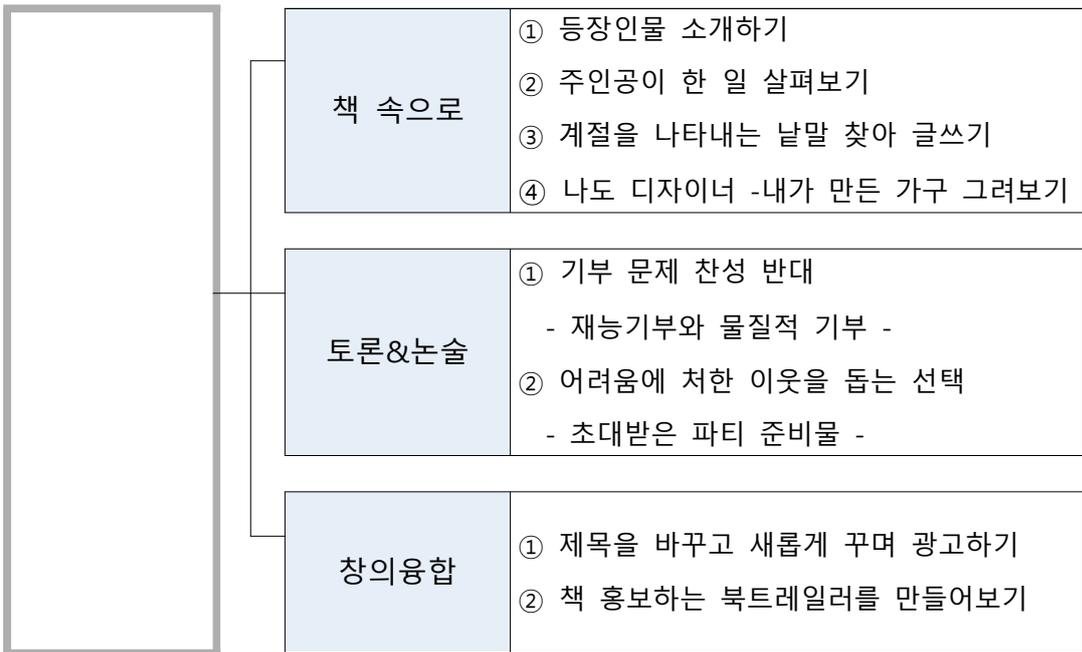
- * 글 : 김영
- * 출판사 : 도토리숲
- * 분량 : 52쪽
- * 그림 : 최정인
- * 정가 : 12,000원
- * 대상 : 8살(저·중학년이상)

· 책 소개

《유별난 목공 집》은 지방에서 친구와 함께 가구점을 차려 돈을 벌어오겠다며 가족을 떠난 아빠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자본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대자본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버린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별난 목공 집>은 지금 이 시대가 처한 상황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 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작품의 기본이 되는 탄탄한 구성과 끝까지 아이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간 점도 다른 작품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김진경, 한정기(5·18문학상 심사평)에서-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 느낌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요약과 그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유별난 목공 집》의 제목과 앞표지를 보고 처음으로 드는 생각을 중심으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인물	
사건	
배경	

- (2~3) 《유별난 목공 집》의 뒷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 주먹밥 공동체의 증여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의 증여적 경제를 되살리고 그를 통해 고갈된 생활 생태계를 되살려내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별난 목공 집》내용이 증여정신과 증여적 경제관계를 다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유별난 목공 집》이 지금 이 시대가 놓인 상황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의 기본이 되는 탄탄한 구성과 끝까지 아이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간 점도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김진경, 한정기(5·18문학상 심사평)에서

2. 소개 글에서 중심 되는 단어를 찾아보고 어떤 의미인지 풀이해 보세요.

⇒

3. 소개 글에서 '주먹밥 공동체'를 읽었을 때 처음 든 느낌을 글과 그림글자로 꾸며 보세요.

⇒



독서 중

국어 교과_작품 단원 연계

사회 교과-우리동네 단원 독서 일지 쓰며 읽기

- 인상적인, 감동적인 부분, 명대사, 명장면 쓰기
- 우리 동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쓰기
- 우리 동네 소개하기
- 읽은 내용 4컷 만화로 표현하기

※《유별난 목공 집》을 읽으면서 아래 독서 일지를 완성해보세요.

읽은 날짜	20	년	월	일
인상적인, 감동적인, 부분, 명대사 명장면 쓰기(문장, 장면)와 이유	인상적인 부분 - 이유:			
	감동적인 부분 - 이유:			
	명대사, 명장면- 이유:			
우리 동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쓰기				
우리 동네 소개하기				
읽은 내용을 4컷 만화로 표현하기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등장인물 소개하기

※ 《유별난 목공 집》의 등장인물 중 두 명을 선택하여 각 인물의 특징을 적고
인상 깊은 말이나 행동을 중점으로 소개해 보세요.

선택한 등장인물 ㉠

등장인물 이름	
등장인물의 상황 (성별, 나이, 직업)	
등장인물이 한 말이나 표정, 행동 중 인상 깊은 것	
등장인물과 함께 하고 싶은 일	
등장인물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선택한 등장인물 ㉡

등장인물 이름	
등장인물의 상황 (성별, 나이, 직업)	
등장인물이 한 말이나 표정, 행동 중 인상 깊은 것	
등장인물과 함께 하고 싶은 일	
등장인물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주인공이 한 일 살펴보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숨을 헉헉대며 가정통신문과 학생기초조사서를 아빠에게 내었다.
 아빠는 물끄러미 학생기초조사서를 살펴보았다.
 “아빠, 여기 직업에 뭐라고 적어요?”
 “예술가.”
 아빠는 대답하는 데 일 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빠가 예술가라고요? 무슨 예술가인데요?”
 “음, 그냥. 가구 디자이너라고 할까?”

(나)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빠는 외출하고 없었다. 거실 소파에 수건이 걸쳐 있고 바닥에는 양말들이 어질러 있었다. 밥 먹은 그릇들도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엄마가 보면 또 잔소리할 텐데. 나는 조심스럽게 빈 그릇들을 설거지통에 담갔다. 반찬그릇도 냉장고에 넣고 수건과 양말을 세탁통에 가져다 놓았다. 발가락이 빠져 나올 정도로 헤진 양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양말 냄새를 맡다가 코를 움켜쥐었다. 쓰레기통에 양말을 던져 버렸다.

(다) 엄마와 자다가 혼자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00까지 세니 오히려 눈이 더 커지고 정신이 말똥해졌다. 이번에는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외웠다. 이사 오고 나서 친구를 많이 못 사귀었다. 학년도 바뀌어서 아는 아이들 이름이 별로 없었다. 오줌을 누면 잠이 올 것 같아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나는 화장실 문을 살며시 열다 멈췄다. 아빠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화장실 거울에서 아빠의 눈물과 마주쳤다.** 나는 화장실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1. (가), (나) 윗글을 읽고, 주인공이 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가)	
(나)	

2. 윗글 (나)에서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

3. 윗글 (다)의 밑줄 친 글을 읽고 주인공의 심정이 어땠는지 표현해 보세요.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계절을 나타내는 낱말 찾아 글쓰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툭툭 아침부터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막 터지기 시작한 홍매화나무의 분홍색 꽃망울에 큼지막한 빗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새 학년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었다. 일요일에 비가 와서 다행이다. 우산을 안 갖고 학교에 갔을 때 비가 오면 엄마가 마중을 나왔다.

(나) 월요일 아침.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학교에 갔다. 오늘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빠가 집에 있다는 것이 특별한 기분을 만들어 주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새학년에 필요한 내용의 가정통신문과 학생기초조사서를 나눠 주었다. 학교 시계가 아예 고장 난 것 같았다. 나는 내내 마음이 붕 떠서 수업이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갈 때는 뛰다시피 했다. 다른 날 같으면 텅 빈 집 안에 들어가기 싫어 느릿느릿 걸었다. 나는 숨을 헉헉대며 가정통신문과 학생기초조사서를 아빠에게 내밀었다.

(다)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두꺼운 재킷을 입었는데도 뼈 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운동장 먼지들을 몰고 달리는 것처럼 세차고 빠르게 불었다. 태풍처럼 강한 회오리바람에 재킷 단추를 꼭꼭 여뒀다. 머리카락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다. 바람이 등을 심하게 떠밀었다.

(라)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색 매화꽃이 사람들 머리에 내려앉았다. “어머, 꽃 다 지겠네. 매실이 주렁주렁 열려야 나눠 먹고 매실청도 만드는데.” 벌써부터 들뜬 엄마 목소리가 유쾌했다.

1. 윗글 (가), (나), (다), (라)를 읽고, 계절과 상관있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

2. 윗글 (가), (나), (다), (라)에서 계절을 알 수 있는 낱말을 찾아 넣어서 짧은 글을 써 보세요.

계절을 나타내는 낱말	계절 문장 완성하기

3. 내가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알리는 글을 써 보세요.

⇒ 계절 :

알림: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나도 디자이너 - 내가 만든 가구 그려보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빠의 파란색 트럭이 보였다.

책상과 의자 위에 걸쳐 놓은 비닐 덮개에 빗방울이 고였다.

책상과 의자가 교실에 있는 것처럼 즐지어 있었다.

(나) “참, 교무실 책상과 의자들 민하 아빠 작품이라는데. 아빠가 멋진 가구 예술가이시구나. 엉덩이벌레 앉아 있으면 진짜 편안해. 고맙다고 전해 드리렴.”

담임 선생님 말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멋진 가구 예술가라는 말을 새기고 또 새겼다.

(다) 아빠는 대문을 고치고 칠을 하고, 똑딱똑딱 낡은 가구들을 새것처럼 바꾸었다.

아빠 손을 거치면 멋진 그림이 되고, 다시 새 가구들이 되었다.

1. 윗글 (가), (나)를 읽고, 아빠가 가져온 가구들을 정리해보세요.

⇒

2. (나)에서 아빠가 그린 문양은 무엇인가요? 그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빠가 그린 문양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

3. 내가 디자이너가 되어서 가구를 선택하고 디자인 해 보세요.

⇒ 품목 :

⇒ 이유 :

선택한 가구(이유)

디자인



독서 후 토론&논술_ ① 기부 문제 찬성 반대

※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재해, 재난 전쟁을 겪고 있는 세계 나라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두 가지 상황에서 생각하여 써 보세요.

*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 되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 이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다른 나라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한 의견을 찬성,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 봅시다.

앞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다른 나라 기부에 대한 찬성 반대

찬성

-재능기부와 물질적 기부-

반대

여유가 없어 돕기 힘들다



독서 후 토론&논술_ ②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선택

※ 다음은 주인공이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와, 이웃들이 파티를 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 만약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지 입장을 바꿔서 써 보세요.

또한 내가 기부와 나눔 경험이 있으면 예를 들어 써 보세요.

(나) 파티에 초대받았다면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이유를 쓰세요.

(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문이 조금 어긋나 삐걱거렸다.

나는 차 소리가 날 때 마다 창문 밖을 보았다. 덜컹! 덜컹! 무서운 소리가 쉴 새 없이 났다. 그때 와장창, 쿵! 갑자기 무언가 무너지는 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밖으로 뛰어 나갔다. 옆집 대문이 한쪽으로 넘어져 있었다. 강한 바람에 오래되고 낡은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었다. 담장도 금이 가고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다. 옆집 할아버지가 대문 옆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해 더듬거리며 주소를 알려주었다. 눈 앞으로 할아버지 손이 보였다. 손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나) 나무 탁자에 이웃들이 차려 놓은 음식은 푸짐하였다.

떡집에서는 건포도가 송송 박힌 백설기를 가지고 왔다.

고깃집에서는 삶은 돼지고기를, 반찬가게에서는 봄동을 내놓았다.

먹기에 아까운 예쁜 딸기는 과일가게에서

생선가게에서는 데친 주꾸미를 분식집에서는 달걀을 삶아 왔다.

요구르트 아주머니는 새로운 요플레를 꺼내 놓았다.

마트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료수를 넉넉하게 내주었다.

엄마는 구수한 잔치국수를 내놓았다. 울퉁불퉁한 달걀지단은 내 작품이다.

(가)

.....

기부, 나눔 경험 :

.....

(나)

.....

[독서워크북]



독서 후 창의융합_ 특별한 책을 소개합니다

1. 《유별난 목공 집》의 제목을 바꿔서 책 광고(띠지)를 만들어보세요.

뒤표지	책등	앞표지

2. 《유별난 목공 집》을 홍보하는 북트레일러를 만들어보세요.

장면	시각 이미지	자막	음성, 효과음, 배경음악 등
1			
2			
3			
4			
5			-